



60. 수택절(水澤節)

大象傳 : 澤上有水 節 君子以制數度 講德行 (택상유수 절 군자이제수도 강덕행)

절과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괘이다.

괴로운 절제는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질 수 없다.

절이란 한계를 지켜 머물다라는 의미로 이른바 절도를 지키는 것이다.

절의 본래 의미는 대나무의 마디를 가리키는데, 그 마디로 한계를 짓는 것이다.

괘의 형상도 연못이 물을 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마르지도 않게 조절되어 있는 것이다.

절을 지킴으로써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절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절제가 너무 지나쳐 병에 걸린다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